



막판 폭로·고발·폭력사태 이러다 재선거 치를판

선택 6·2 지방선거 D-1

광주·전남 격전지 금품살포 의혹도

6·2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폭로 전과 흑색선전, 고소·고발과 금품살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벌써 '재선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조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막판 금품살포 등 막가파식 불·탈법 선거운동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장성군수 선거전에서는 모 후보가 유세현장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2만~3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장성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다. S(48·여)씨는 이날 "모 군수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60~70대 노인 12명이 모여 2만원 가량을 주고 받는 모습을 포착,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장 선거전에서는 민주당 오현섭 후보가 사조직 운영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흑색 폭로전 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장 선거전은 그동안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 후보 비방 전단지 살포, 선거 운동원 폭행 논란 등 각종 탈·불법 선거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30일에도 해남군수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철환 후보와 무소속 이석재 무소속 후보가 유세장 폭력사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화순군수 선거전에는 '술자리 잡매 의혹'을 놓고 고소고발 사태가 연쇄됐다. 곡성군수 선거전에는 허위사실 유

포를 둘러싸고 민주당 조형래 후보와 무소속 허남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전개됐으며 담양군수 선거전에는 '굴비세트 제공' 등 각종 논란이 확산되면서 과열되고 있다. 나주시장 선거전에서는 거소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각 후보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 나주시지역 후보들은 이에 따라 막판 금품 살포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처립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고소·고발전이 급증함에 따라 최소한 2~3곳 이상에서 '재선거'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31일 현재 지방선거 사범 140여명을 적발, 8명을 구속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도 6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전남경찰청은 14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로호 두번 실패는 없다”

2차 발사 8일 앞두고 페어링 완벽 보완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2차 발사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0면> <9일 오후 4시30분~6시40분 발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지난해 8월25일 1차 발사에 이어 오는 9일 2차 발사를 하게 된다. 지난해 발사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 문제도 완벽하게 보완했으며 총조립도 마쳤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는 9일 오후 4시30분~6시 40분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다. 현재 항우연은 케이블 연결 등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다. 항우연은 점검 이후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D-3일인 6일 한-러 비행시험위원회가 급증함에 따라 최소한 2~3곳 이상에서 '재선거'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31일 현재 지방선거 사범 140여명을 적발, 8명을 구속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도 6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전남경찰청은 14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면 나로호의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발사 하루전 최종 리허설을 한다. <미리보는 발사순간=항우연은 발사에 앞서 연료와 전기 계통 등을 중점 점검하고, 발사 당일에는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다. 이어 발사 예정 시간 18분전 실제 발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발사 예정 시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도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 15분 전부터 자동 카운트다운에 착수한다. 이어 페어링 분리→발사체 1단 분리→과학기술위성 2호 분리가 숨겨지게 진행된다. 과학기술위성2호와 지상국인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첫 교신을 하는 것은 발사 후 약 13시간 후다. /김필상기자 kps@

경찰 불법선거 엄단 일제 검문

광주·전남 경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일제 검문검색을 벌이는 등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갑호 비상령'에 따라 불법 선거 행위 엄단을 위한 총력 경비근무에 들어간다. 광주·전남 경찰은 각각 1000여명, 3708명을 투입해 광주·전남의 투표소와 개표소, 투표함 회송 노선 등에 집중배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연인원 7만7000여명이 동원돼 불법 선거행위를 감시한다. 경찰은 투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2 순찰차를 투표소 100m 밖에 배치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 차량에 무장 경찰관을 동승시켜 불법 선거 행위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 출동부대를 곳곳에 대기시키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는 경찰 차량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운동일 마지막 날인 1일과 선거일인 2일에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한 불법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일제 검문검색에 나선다. 적발 대상은 금품제공과 흑색선전, 인터넷 비방 등이다. 경찰은 또 광주·전남 선관위와 연계해 금품살포와 함음 제공, 허위사실 유포, 불법 유인물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최경호·이중형 기자 choice@

“모내기 돕겠습니다...한포 부탁드립니다”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화순군 기초의원 출마자가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눈에 들어가 일손을 도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순=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더 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선 062-605-1115

本社人事
▲ 朴東釘
이사·경영총괄본부장
(6월1일자)

제37회 光日 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9일(수) 오후 3시
정부광주합동청사서 시상식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37회 光日 보훈대상 시상식을 9일 오후 3시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강당에서 갖습니다.	 (김경중씨)	 (김중희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영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익씨)	 (양병순씨)

수상자
▲ 김경중씨(순천군청 유족·48· 광주 북구 동명동)
▲ 김중희씨(공상군경 1급 처·61· 광주 광안구 신가동)
▲ 문대익씨(특별부훈·67· 광주 광안구 월곡2동)
▲ 양병순씨(전상군경 유족·72· 광주 서구 양동)
▲ 정승필씨(전상군경·61· 광주 광안구 송정동)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6월 2일, 가족을 위해 어디부터 가세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